



권대일 전북병무청장, 병역지정업체 방문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3월 28일(화) 전북 익산시 소재 병역지정업체인 (주)지앤지엔터프라이즈를 방문했다. (주)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의류 전문업체로 친환경 니트웨어, 언더웨어 등 생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8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주)지앤지엔터프라이즈에는 현재 7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곳이다. 이날 현장 방문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일 청장은 "업체장과 환담 자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숙련된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근로자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하며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영태 기자



엄익준 완산구청장, 관내 주민센터 방문 점검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관내 주민센터를 28일 방문해 공공시설물 내 의무 편의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엄 청장은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의회 5분 발언 사항들에 대한 점검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특히 화장실 내 장애인 편의시설과 임산부 휴게실 내 편의시설, 승강기 현황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중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원활한 공공시설 이용을 위해 관계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경아 기자



남원새일센터, 맞춤형 근로자 교육 지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오는 30일과 31일 구인업체인 남원이동발달센터와 서남재가노인복지센터 종사자 총 71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근로자교육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교육은 새일센터에 구인등록된 업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전환교육, 법정무교육 및 기업희망 주제로 강의와 간단한 간식을 지원하게 되고 교육 장소가 필요한 기업은 남원시평생학습관 강의실 활용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남원이동발달센터는 "종사자 장애인 인권교육"을 전북새일센터와 네트워크 협업 연계로 섭외한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김정하 장애인인권강사와 소정훈 발달장애인파트너 강사가 희망을 주제로 특강과 피아노 연주를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자원센터, 색칠 봉사활동 진행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25일 민경을 소외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마음을 담은 '색칠' 페인트 봉사를 시작으로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첫 활동에서는 칠봉화(페인트칠하는 봉사회, 회장 고성훈) 회원 8명이 참여하여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빈 벽 페인트칠 및 색칠, 문수리 등 따뜻한 나눔 봉사에 구슬땀을 흘렸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우수자원봉사 프로그램은 단체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인 만큼 작은 도움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원봉사 단체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꾸준한 사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기부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

정성주 김제시장·우범기 전주시장,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로 상생 협력

정성주 김제시장과 우범기 전주시장이 28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기원하고 양 지자체 간 상생 협력하기 위해 상호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상호 단체장의 기부는 시행 초기 단계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김제와 전주가 뜻을 모아 진행하게 되었다. 김제와 전주는 단순히 인접하고 있는 것을 넘어 공동으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서로의 관광·체험상품 지역화폐 등의 답례품을 선택하여 이용하거나 사용하기에도 유용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교차 기부를 통해 김제시와 전주시가 교류·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와 김제시가 교차 기부를



통해 상생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교차기부가 양 도시의 주민을 비롯한 많은 분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를 공감하고 기부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예수병원-AIT릭스’ 선진 의료서비스 도입 협약

예수병원은 한층 높은 선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민 건강지킴이 역할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예수병원(병원장 신중식)과 인공지능(AI) 전문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KS, 대표 김광준 유진규)는 예수병원에서 AI 기반 선진 의료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예수병원 7층 회의실에서 신중식 병원장과 김광준 대표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측은 '급성 상태 악화 조기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과 뛰어난 의료 전문성 및 임상 데이터 적극 활용, 전북 도민들에게 선진형 의료서비스 제공, 스마트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T릭스는 병원 내 응급상황 조기 예측 솔루션인 AITRICKS-VC(비탈케어)를 개발해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명확한 근거가 요구되는 의료분야에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 예수병원에서도 AI 선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중식 예수병원장은 "지난해부터 우리는 삼성 SDS와 차



세대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 이번 AI 솔루션 전문기관의 비탈케어 도입 또한 첨단 ICT 기반 미래지향적 스마트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고 밝혔다. 에이아이트릭스 김광준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한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해 온 자사의 환자 상태악화 예측 AI 솔루션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병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에이아이트릭스는 자사의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및 국가 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부안축협,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 기부

고창부안축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이 28일 부안군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4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들은 부안 발전을 응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김시중 조합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과 부안의 발전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기부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관, 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연 군수는 "많은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 고향사랑기부제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며 "부안을 사랑하는 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하며, 부안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인당 500만원의 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혜택과 답례품(기부금액의 30% 이내)을 받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덕진경찰-변호사회, 수사과정성 확보 간담회 개최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지역민들의 인권 보호와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변호사회(회장 김학수) 임원진 및 수사관들과의 간담회 시간을 28일 가졌다. 김학수 회장은 "경찰의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시간이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고 구속반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회와 상호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경찰, 치안행정 최신화 위한 실천방안 마련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및 각 과장, 과·계·팀장, 지구대·파출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전북청지휘부 워크숍 관련해 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중간관리자의 해신지 결집과 마음을 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 재정립을 목적으로 '치안행정 최신화'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안전 확보,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치안 실천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경찰조직을 위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중간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그 역할을 다할 때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주민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수여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28일 무주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조합원자녀 대학생 34명에게 각 80만원씩 총 27,200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합원자녀 장학사업은 조합원의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372명에게 총 348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곽동열 조합장은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이웃사랑 실천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가 지역내 아동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현물 학습꾸러미 50개를 쾌척했다. 농협중앙회무주군지부 권오진 지부장은 28일 오전 무주군청을 찾아 황인홍 군수에게 현물 학습꾸러미를 기탁했다. 권 지부장은 "무주 지역 내 아동들이 향후 무주 발전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 기탁하게 됐다"라며 "무주지역 아동들이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지역 아동들을 위해 정성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아동들이 무주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군은 접수된 물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후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정읍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컨설팅 수요생 배출

정읍시는 지난 28일 청춘윙클러스(연자길 189-4)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권 활성화 컨설팅 '창업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다. 상권 활성화와 컨설팅은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 등 어려움 속에서 원도심의 상권 활로를 모색하고,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마케팅 등 창업경영전략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2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창업 아이템 선정 △시장 분석 및 입지 전략 △홍보마케팅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또 교육 시작 전 개별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수준에 맞춰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됐다. 수요사에서는 교육생들이 그간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다른 교육생과 공유하는 창업계획 발표회도 진행됐으며 발표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을 하거나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 신청 등 행동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